



지난 21일 태국 방콕 후아막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아시아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78kg급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현지(왼쪽에서 두번째)

국내최강 이현지 아시아 정상 등극

2022 아시아 청소년 유도선수권 +78kg급 우승 대표팀 중 유일 중학생... 세계 무대 향해 '포효'

국내 유도 최강 이현지(제주서중)가 마침내 아시아까지 접수하는데 성공했다.

이현지는 지난 21일 태국 방콕 후아막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아시아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78kg급 결승전에서 카자흐스탄의 타키예바 카리나를 허벅다리걸기 한판승으로 꺾으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현지는 앞서 1회전에서 몽골에 영호텐드에 발목박치기 한판승을 시작으로 2회전에서 카자흐스

탄의 토시메코바 아이다를 밧다리걸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을 합쳐 한판으로 제압했다. 이어 준결승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파르모노바 모히누르에게 발목박치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으로 한판승을 따냈다.

이현지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선수 중 유일하게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국내 무대 평정에 이어 세계무대를 향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이현지는 지난 4월 19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제26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2022 아시아 및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관련 대표 선발전 겸 여자부 +78kg에서 고등부와 대학부의 선배들을 잇따라 꺾으면서 우승과 함께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현지는 또 올 시즌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해 2022 양구평화컵 전국 유도대회와 2022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대회, 2022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등 출전한 모든 대회를 석권하면서 '무패가도'를 달리고 있다. **조상윤기자**

제56회 제주도민체육대회 '카운트다운'

도체육회 준비기획단 운영... 지원체계 가동 학생·일반·장애인부 나눠 52개 종목서 열전

제주도민 화합의 대향연인 제56회 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가 오는 10월 28-30일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대회개최에 따른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부평국)는 지난 20일 도민체전 D-100을 맞아 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를 가졌으며, 본격적인 대회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총 37명으로 대회운영, 경기운영, 식전운영, 대회지원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학교부, 일반부, 장애인부로 나눠 총 52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전문체육·생활체육간의 유기적인 연계로 선수들의 스포츠활동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대회를 통해 지역단위 스포츠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체전의 흥미를 더해주고 있는 읍·면·동 대항경기는 민속경기를 포함해 11종목에 걸쳐 펼쳐진다. 읍·면·동에서는 3개 이상 종목에 대해 참가할 수 있으며, 내외 제주도민의 화합을 위한 재외도민의 경기도 축구,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경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폐회식은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문화행사도 체전을 더욱 더 풍성하게 만든다. 어린이 사생대회, 스포츠문화 이벤트 행사, 지역홍보, 지역홍보관 등 체전을 지역문화의 공연장으로 알차게 꾸러질 전망이다.

대회 구호 공모는 오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조상윤기자**

삼성, 25일 만에 승리... 13연패 탈출

오재일, 투런포 포함 5타점 선발 허윤동은 첫 QS 달성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진 13연패 사슬을 끊었다.

삼성은 2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방문 경기에서 5타점을 몰아친 오재일의 맹활약과 선발 허윤동의 역투를 앞세워 키움 히어로즈를 8-0으로 꺾었다.

구단 역사상 최다 연패에 빠졌던 삼성은 6월 29일 kt wiz전(8-2 승리) 이후 25일 만에 승리를 추가하며 8위 자리를 간신히 지켰다.

삼성은 2회 선두 타자 오재일의 우익선상 2루타와 김재성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그러나 3회 2사 1, 2루, 4회 2사 1, 3루 기회에서 추가점을 뽑지 못해 더 달아나지 못했다.

답답한 상황을 끊은 건 오재일이다. 그는 1-0으로 앞선 5회초 2사 2루 기회에서 상대 팀 선발 타일러 애플러를 상대로 묵은 때를 씻어내는 좌월 투런포를 작렬하며 연패 탈출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는 초구 시속 144km 낮은 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비거리 110m의 홈런을 쏘아 올렸다.

삼성은 6회초 공격에서 다시 폭발했다.

2사 후 이재현, 오진진, 김현준이 상대 팀 바뀐 투수 양현을 상대로



길고 길었던 13연패 탈출 2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8-0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로 끝났다. 1루수 망블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은 뒤 삼성 마무리 투수 유규민이 감정이 북받쳐 글러브로 얼굴을 긁고 있다. 연합뉴스

세 타자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만루 기회를 만들었고, 구자욱과 호세 피렐라가 연속해서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 5-0으로 달아났다.

오재일은 계속된 2사 만루에서 승리에 췌기를 박는 장타를 생산했다. 오재일은 양현을 상대로 좌중간 펜스 상단을 맞는 싹쓸이 적시 2루타를 터뜨렸다.

시 두루 차를 벌린 삼성은 7회 이승현(등번호 20번), 8회 이승현(등번호 54번), 9회 유규민을 투입하며 경기기를 끝냈다.

오재일은 투런 홈런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5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그는 2회 결승 득점, 5회 투런포, 6회 췌기 적시타 등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선발 허윤동은 프로 입단 후 처음으로 퀄리티스타트(60이닝 3자책점 이하·QS)를 달성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그는 6이닝 동안 2피안타 2볼넷 1사구 7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개인 4승(2패)째를 거뒀다. **연합뉴스**

임성재, 3M오픈 3R 공동 6위 선두 피어시와 7타 차 벌어져

임성재(24)의 시즌 두 번째 우승이 쉽지 않아졌다.

임성재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인의 TPC 트윈티스(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M오픈(총상금 750만달러)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쳤지만, 순위는 전날보다 2계단 하락한 공동 6위(11언더파 202타)로 밀렸다.

5타를 줄여 18언더파 195타로 선두를 지킨 스코트 피어시(미국)와 타수 차이는 7타로 더 벌어졌다.

첫날 공동 선두에 올라 시즌 두 번째 우승 전망에 파란불을 켜던 임성재는 최종라운드에서 힘겨운 역전에 도전한다.

약전후 때문에 경기가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하면서 10시간 넘게 이어진 3라운드에서 임성재는 7개의 버디를 뽑아냈지만 보기 3개가 아쉬웠다.

PGA 투어 통산 4승을 올린 피어시는 1, 2라운드에 이어 사흘 연속

선두를 달려 2018년 4월 취리히 클래식 이후 4년 만의 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에밀리아노 그리요(아르헨티나)가 4타 뒤진 2위(14언더파 199타)에 올랐다. 교포 더그 김(미국)과 토니 피나우(미국)가 13언더파 200타를 적어내 공동 3위에 포진했다.

김주형(20)은 4언더파 67타를 때려 공동 24위(5언더파 208타)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2언더파 69타를 친 노승열(31)은 공동 31위(4언더파 209타)로 최종 라운드를 맞는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I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리뷰 8:25 아침미팅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TV소 진품영품(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불만인 아침 M&W 1부 8:10 해 불만인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차 내 인생(재) 10:00 인강리뷰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미남당(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테마여행 길 스페셜 8:50 비밀의 집(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 맛에 산다 11:15 헬로키즈 체육교실 11:45 똑딱구조대 2(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아침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45 띠띠뽀 띠띠뽀 8:00 띠띠뽀 유치원 9:20 꼬마버스 타요 9:40 띠띠뽀 유치원 10:10 한국의 클래식 13:50 EBS 다크프라임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7:45 출렁! 슈퍼웬스 18:00 생활속 퀴즈 해결단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킹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16:00 시사간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미남당(재) 13: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케치 티니핑(재)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크(재) 16:50 연중 라이브(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도포지락 휘날리며 스페셜 13:5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15:55 기분 좋은 날 16:55 5 MBC 뉴스 17: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재) 14: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00 KCTV 뉴스 8:00 낭만을 고향리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KCTV 시청자세상 14:30 할말야, 어머노사나 15:20 민요 어버전서 17:00 KCTV 뉴스 18:30 할말야, 어머노사나 20:50 제주산채 21:00 KCTV 종합뉴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우기 20:30 오라차차 내 인생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황금기연 20:30 이별도 리콜이 되나? 21:50 미남당 23:00 좋은 출몰하다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비밀의 집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안싸우면 다행이야 22: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8:50 성산초기해당축제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19:40 하이 제주 스페셜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0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23:40 철학! 무비월드	7:00 김달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철의 뉴스쇼 9:00 고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농축뉴스 14:05 송정미의 속속송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총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25일

김종상 지단(호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사소한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자 조심. 48년 동료나 동업자, 거래처의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각별한 주의 요망. 60년 사소한 시비가 구설수가 되니 읊주나 자방운전은 삼가고 조기 귀가가 좋다. 72년 말뚝함이 있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 84년 애인에게 히든카드를 보이지 마라.

37년 낙상이나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조심. 49년 재물 손실이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경쟁업체 등장. 61년 사업이나 진로개발 등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73년 약속이 중첩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선약에 충실하라. 85년 기초가 튼튼해야 하니 매사를 꾸준히 다져 나가는 습관이 필요.

38년 든든한 내 자식의 자랑도 남이 해야 더욱 빛난다. 50년 치밀하고 꼼꼼하며 정확함이 돋보인다. 62년 기쁜 일이 참여하면 자녀의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고생이 있는 날. 74년 차량으로 인해 고생을 하니 운전 조심. 86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39년 친인척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격정스런 소식을 접한다. 51년 웃어른 일로 자금이 지출되거나 손재수가 있다. 63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승진. 75년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너무 들뜨면 구설이 시달리니 마음을 편하게 하라. 87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주선되고 기쁨도 있다.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게.

40년 이웃과 나눔을 갖거나 먹을 복이 있다. 52년 경력과 노하우로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64년 부부간에 다툼이 커지니 즉시 화해할 것. 76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굵고 시가지가 생겼다. 88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외출이 기다리고 있다.

41년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 53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65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요망. 77년 집안에 격정이나 근심이 있고 연락이 잘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취하라. 89년 약속이 늘어나고 계획이 많으나 자질이 생긴다.

42년 갈 곳 없이 재물이 줄어든다.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54년 주변에 나를 알리려면 대인관계를 지속하라. 66년 솔직하고 화합을 좋아해도 비판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지 마라. 78년 집안에 뒷사람 일로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해드려라. 90년 친구나 이웃과 모임이 생기면 참석하라.

43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려라. 골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55년 직장에서의 기쁜 일이 있거나, 관급계약이 있다. 67년 이성교제나 새로운 이성친구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고 갈등.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대책이 있고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91년 의욕이 중추하여 무슨 일든 하고 싶어한다.

44년 좋은 일 속에서도 도사리나 밀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56년 명예나 인간관계 체질이 뛰어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68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이 인정받는다. 80년 시험, 공부는 좋으나 직장인은 갈등 고민. 92년 관청에 할 일이 있어 외출을 하거나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45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니 귀가는 늦지 마라. 57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 필요. 부부간 시댁, 처가문제로 논쟁된다. 69년 자녀일로 고민하거나 상의할 일이 생긴다. 81년 가정불화, 애정관계 문제없이 이해하고 배려 필요. 93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게 좋다.

46년 자녀에 혼담이 오거나 상견례가 오갈 수 있다. 58년 책임분야 능력을 인정받고 순조롭다. 다만 자녀로 인해 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0년 소개 또는 중매를 받아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호기심이 발동하고 구매의욕이 커진다. 94년 의욕이 상승하나 계획추진은 지연되는 모습으로 심사숙고 필요.

47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때론 필요하다. 59년 자신 일보다 자녀로 인한 마음. 전전긍긍. 71년 멧을 내고 외출하려 한다. 이성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83년 취업준비 직장내 업무로 바쁘고 분주하다. 95년 힘이 들어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진다. 변통하는 것은 신중을.